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대학」

(CUP간 / 양승훈 지음)

장갑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문과 교육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대학 - 이
틈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인다. 그러한 대학을 꿈꾸면서 상당한 세월동
안 고민하면서 가능성을 진단하고 빠른 실현을 위해 잠 못 이루면서
얼마나 많이 모였던가? 학문의 길을 가면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학문의 주인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슬퍼하며 가슴치는 울분을
토한 적은 몇 번이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방황하다
하나님을 떠나감을 보고 얼마나 애통해 하였던가? 학문의 주인께서 그
를 사랑하는 젊은 학도들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에 이 울분을 담아
주시고 이를 '새로운 대학'의 비전으로 승화시키시사 곧 탄생될 시점까
지 오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감사하다.

이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깊이 그리고 넓게 고
민해 온 양승훈 님을 통해 「새로운 대학」이 나오게 됨을 감사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잠자는 교회를, 잠자는 가슴들을 깨워야겠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고는 행동할 수 없음을 알지 않는가? 이제 곧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소개하고 전달해야겠다.

「새로운 대학」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법 오랫동안 고민한 뒤에 탄생한 결정이다. 대학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고 해석했다. 또 기독교 대학이 많은데도 기독교 대학이라 할 수 없는 까닭과 그 대학들이 세속화된 이유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고, 왜 새로운 대학이 필요한지 또 그 대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피력했다.

이 책은 철저한 성경주의 원칙과 하나님 중심 사고의 바탕 위에서 쓰여진 신앙 고백과도 같은 책이다. 「새로운 대학」이 그리는 참다운 기독교 대학이 현실로 존재할 날이 멀지 않다. 기대감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의문과 우려는 설립 후의 문제들이다. 기존 기독교 대학들 중에서 그런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학교들이 많았는데, 타락의 경로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들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기독교 대학은 거기 몸담은 사람들의 영성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 이에 대한 영원한 대안 내지 장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로운 대학」은 참으로 필요하다. 또 훌륭하다. 이 시대 대학을 보고 개탄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좋은 학교라고 찬사를 부르고, 설립이 되어지면 개가를 부를 것이다. 종의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남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대학의 설립은 필연적 사실이다. 「새로운 대학」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잘 지적되고 있다. 무지한 누군가가 이미 기독교 대학이 많이 세워졌는데 또 필요하

나, 관심과 고민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려한다면 이 책을 보고 깨닫고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 대학의 국제화 방안'은 21C를 바라보는 대안으로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대학들이 어학 연수나 진학을 위해 국제적 진출을 시도하거나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수한 자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대학생 전체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기회를 보장한다는 건 정말 획기적이다.

또 '기적으로 세워질 대학을 바라보며'의 대천덕 신부님의 대답 내용 정리는 무엇보다 귀했다. 질문 내용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대학 설립과 관련된 짜임새가 있었으며 대 신부님의 대답은 영적이고 예리한 통찰력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것 같은 정답으로서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책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학교 교육의 시작과 대학 교육의 발단과 그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대학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거나 약했다는 점이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히 주문해 보는 것이다. 대학 4년도 중요하지만 초중고교 12년은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대학 설립보다 앞서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 문제 중 대학 설립 하나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해서도 안됨을 말함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신앙 인격의 모순과 괴리를 가져온 것이 교육의 문제이기때 참으로 교육 개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가 초중고교 과정에서도 성경적인 교육 과정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는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기를 바라

기 때문이다.

나는 참다운 기독교 대학을 그린 「새로운 대학」을 보고나서 그런 대학이 기적적으로 세워질 것임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것이기에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 거대한 일이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 모두 인식한다.

이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에, 주님 없인 결코 자신만만해 할 수 없기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말보다, 일보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자.